

최근 프랑스 경제동향 및 시장여건

(작성부서 : 해외마케팅팀)

1. 국가개황

국명	프랑스공화국 (République Française)
면적	549천 km2 (한반도 면적의 약2.4배)
수도	파리(Paris)
언어	프랑스어
인구	6595만명 (2013년 6월기준) (세계인구21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가미)
국가원수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 2012.5월 취임(5년임기)
	총리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2014년 3월 임명



2. 경제동향

가.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12	2013
명목 GDP	2조6890억US\$	2조9150억US\$
실질경제성장률	0.3%	0.3%
1인당GDP	42,403US\$	44,682US\$
물가 상승률	2.0%	0.7%

- 화폐단위 : 유로(Euro),센트(Cent=1/100유로)
- 국가신용등급 : 2013년 12월 FITCH에 의해서는 기존 등급(AA+)회복

3. 시장여건

□ 프랑스 경기 회복세는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증가

- 프랑스 경제지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나 현 올랑드 정부는 '13년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 '14년 경제회복 시작 전망
- 스마트폰, 자동차, 영화 등의 인지도가 한국식품소비에 긍정적 영향
 - * 유럽시장 점유율 : 삼성 스마트폰 50% (1위), 현대기아차 6.5% (8위)

□ 한국식품이 판매되는 현지 대형유통업체가 증가 추세

- 유럽 내 아시안 시장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현지 유통업체 및 아시안계 유통업체에 한국식품 입점 점진적 확대 추세 (Auchan, Intermarche, Carrefour, Casino 등)
- 중국계 유통업체의 시장확대와 더불어 한국식품 입점 및 판매도 활성화 추세임(Paris Store, Tang Frères 등)

□ 인구 고령화(Greying of Europe) 현상으로 관련산업 성장

- 건강보조식품, 발효식품 등의 인기현상 확대
 - * EU(27개국)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 전망 : ('11) 17.5% → ('60) 29.5%
- 프랑스 바이오 식품시장 2013년 매출 43억5000만 유로로 8% 증가 등 재정위기 중에도 지속 성장
- 고소득층 및 여성 소비자의 웰빙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차가 인기를 끌고 있음 (KUSMI Tea, Mariage Frères 등)

□ 인스턴트, 즉석식품의 소비량 증가

- 프랑스는 미국, 영국에 비해 인스턴트식품의 소비량이 많지 않은 편이나, 바쁜 라이프스타일 및 여성근로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과거 프랑스식 점심식사는 장장 1~2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단계의 코스 요리가 많았으나,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시간 내외로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
- 효율과 실적을 강조하는 직장 문화에 점심시간이라도 아껴 일하는 직장인이 많아지는 가운데, 점심시간을 운동, 외국어공부 등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간단한 점심식사는 점차 대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 소비가 늘고 있음

□ 건강식품 및 유기농, 프리미엄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이러한 트렌드는 프랑스 내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유기농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식료품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또한 고품질의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임
- 특히 프랑스 음료시장은 천연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업계의 프랑스 기능성 음료시장 진출기회